



북극궁 종소리

장영실의 측우기

간의의 발명

어느 날 영실을 찾아온 두 손님이 있었다. 바로 익양 이천과 예운관 대제학 정인지였다.

“아니, 어쩐 일로.”

“긴히 의논할 일이 있어 왔소. 상감께서 간의를 만들라는 명을 내리셨소. 쉽게 맡길 일도 아니고 떠오르는 것이 자네라서.”

“간의라면.”

“그래. 하늘의 움직임에 따라 농사에 필요한 절기와 자연의 변화를 보는 기구지.”

“하지만 간의에 대한 기술도 없을 뿐 아니라, 자료 또한 턱없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장영실은 어안이 병병해 정인지와 이천을 번갈아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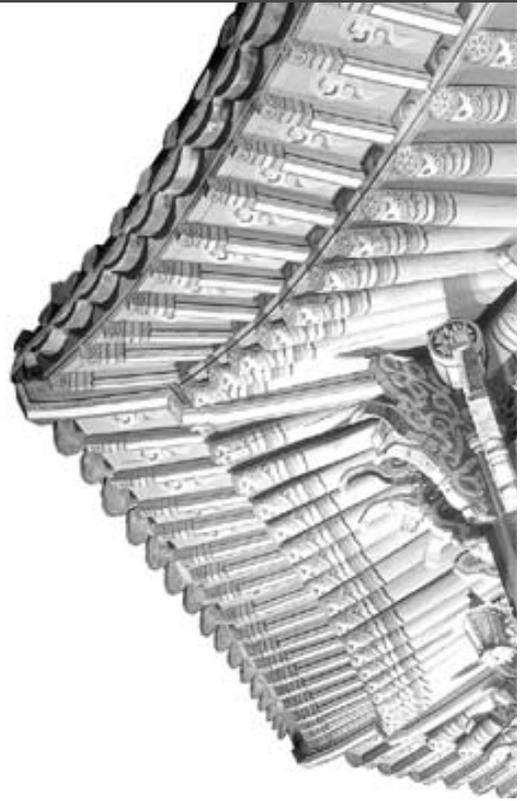
“그러니 자네에게 온 것이지.”

이천의 간곡한 부탁에 승낙은 했지만 어떻게 풀어야 할지 난감했다.

우선 장영실은 많은 양의 과학 책을 읽었다. 중국 학자가 만든 책도 읽었다. 그러나 몇 달이 지나고 시간이 흘러도 아무런 진척이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책을 읽던 장영실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아낸다.

‘그래! 한양이 북쪽 위도로 38도에 위치해 있구나!’

머칠 뒤 장영실은 간의를 만드는 데 성공한다.



이어 연구에 연구를 거듭해 간의보다 한 단계 발전된 혼천의를 만들어 낸다. 이 혼천의는 천문 시계의 기능을 지닌 것으로 서양의 기술보다 약 200년 앞선 것이었다.

“정말 장하오. 그대와 같은 인재가 있는 이상 우리의 과학 기술은 충분히 발전하리라 믿소.”

세종은 영실을 칭찬했다.

“들어라. 별좌감 장영실을 정4품 호군에 임명하노라.”

“성은이 망극하여이다.”

천한 관기의 아들로 태어난 장영실은 조선 아니 세계 최고의 발명가였다. 금속 활자의 단점을 보완한 갑인자 또한 서양보다 200년 앞선 것이었고, 자

격루(물시계), 앙부일구(해시계) 등도 장영실이 만들어 낸 발명품이었다.

장영실의 업적은 이에 그치지 않고 비의 양을 측정하는 측우기를 만들어 내는 데 그 찬란한 빛을 발하며 절정에 달한다.

다음호에 계속

한국발명진흥회 사업외지원팀 팀장
왕연중記

발·특2006.2|